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생태윤리 Imago Dei 와 One Health 개념을 중심으로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부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원헬스 개념과 전개과정
- III. 감염병과 생태·기후위기
- IV. 생태·기후위기와 하나님 형상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해석
- V. 관계적 관점의 하나님 형상 개념으로 본 원헬스와 생태 신학
-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5.01>

• ABSTRACT •

**Christian Ecological Ethics in the Post-Corona Era:
focused on Imago-Dei and One-Health concept**

Associate Professor Kim, Seongho (Korean Bible University)

Over the past few years, COVID-19 has triggered a rethinking of our relationship with humans, animals, and nature.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epidemics like this can spread at any time, the destruction of ecosystems and climate crisis require reflection on anthropocentric values and a new introsp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imals, and the environment. In the unprecedented challenges of not only COVID-19 but also the climate emergency, there is a need to redefine ecological theology based on the newly revealed reflection and critical mind of COVID-19. From a theological perspective, there is a need to re-examine the responsibility for the stewardship of Genesis, which is “subdual and dominion” in the tradition of Christian faith. We must open a new Christian ethical paradigm with awareness of the serious harm that anthropocentrism can bring. This study looked at Christian ecological ethics in the post-COVID-19 era, focusing on the concept of Imago-Dei (God’s image) and One Health in Genesis.

Key words: Post COVID 19, Climate Crisis, Ecological Theology, Christian Ecological Ethics, Imago-Dei, One Health

I. 들어가는 말

지난 몇 년간 전 인류는 코로나 19로 인해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았다. 문제는 이런 전염병이 언제든지 창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지금까지 자만하던 인간중심적 가치관을 반성하고 생태계 일부로서의 인간을 돌아보게 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바뀌어 버린 세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상이 되어버린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하며 감염병과 인간-동물-환경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위기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혹은 기후 비상상태라는 전례가 없는 문제에 직면하여 기독교 신앙 전통 속에 흐르는 “다스리라”라는 창세기의 창지기 직분에 대한 책임을 신학적 차원에서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종교는 윤리를 이끌어 왔으며, 특히 기독교 윤리 규범이 서양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회 윤리 규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생태 윤리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사람과 동물, 환경 등 생태계의 건강이 모두 연계되어 있다는 원헬스(one health) 개념을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원헬스 개념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서로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존재하며 다른 생물의 안녕을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생물은 없다는 창조 신학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 대한 창지기 직분, 사회적 책임과 보살핌의 윤리적 원칙과 일치한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기독교 윤리는 동물과 자연을 인간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여겨온 전통적인 인간중심주의의 세계관을 반성하고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책임의 일부로 동물과 환경을 포함한 기후 취약계층을 돌보고 보호해야 하는 기독교 윤리적 의무를 강조해야 한다. 둘째, 원헬스 개념은 인간·동물·환경의 보건 문제를 해

결을 위한 기독교 윤리의 실천적 방식에 적용할 수 있다. 모든 생명체와 환경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고 피조세계의 조화로운 공생을 위한 공동 노력을 촉진하는 데는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농업과 축산 관행의 개선, 자연 서식지 보존, 환경오염 및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이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전통적인 기독교 윤리학은 인간과 인간 혹은 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 관여했지만 이제는 그 범위를 자연생명 전체에게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의 창궐이나 기후 변화의 위협이 특히 소외된 인간, 동물, 지역사회에 더욱 취약한 점을 감안할 때, 모두를 위한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헬스 개념은 사회 정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본 연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서 인간의 청지기적 사명을 넘어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고 창조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생태윤리를 창세기에 나타난 Imago-Dei(하나님 형상)와 원헬스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원헬스 개념과 전개과정

오늘날 세계가 수많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인류는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인간, 동물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 나오는 산물이 복잡하게 얽히고 섞이면서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이 인간, 동물, 환경이라는 세 영역을 오가며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들 3자의 건강은 깊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¹⁾

1) Ronald M. Atlas & Stanley Maloy, *One Health: People, Animals, and the Environment*, 김영아 외 역, 『원헬스. 사람·동물·환경』(서울: 범문에듀케이션, 2020), 17.

전 지구적인 관심을 끄는 사인이자 국제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기후 변화 위기와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원헬스 패러다임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²⁾ “원헬스”란 사람, 동물, 생태계(환경)의 건강이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사람, 동물, 생태계 사이의 연계를 통하여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을 의미한다. 이 같은 개념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보건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전제로 인류의 보건 문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접근법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분야이다.³⁾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생태학적 관점은 종교나 환경운동의 영역으로 알려졌지만 실제적인 원헬스 개념은 의학 영역에서 출발했는데, 이는 기원전 400년으로 추정되는 히포크라테스의 “On Airs, Waters, and Places”로 거슬러 올라간다⁴⁾. 1885년, 독일 의사 루돌프 피르호는 동물과 인간 의학 사이의 관계를 주목하여 처음으로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처럼 19세기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의학과 수의학 사이에 경계가 없다는 인식은 20세기에 들어 새로운 개념을 출현시켰는데, 1984년 수의학자 켈빈 슈바베는 ‘원 메디슨(One Medicin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인간과 동물의 의약품 통합을 주장했다.⁵⁾ 2000년대에 들어서 점차 이 용어는 ‘인간의

2) 공혜정, “새로운 변화기후변화와 원헬스(One Health) 패러다임 고찰,” 『생태환경과 역사』 5(2019), 69-104.

3) One Health 개념은 아직 국내에는 널리 소개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One Health 국제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 대중적 관심이나 전문가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다. 2018년에 들어서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 날을 맞아 사람·동물·환경을 연계한 ‘One Health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대부분 인수공통 전염병 등에 치중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스웨덴, 태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도 원헬스를 전면으로 내세운 유관 기관을 만들었다.

4)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AVMA), (2022). <https://www.avma.org/resources-tools/one-health>, 2023. 02. 21 최종 접속.

5) 들뜰라, 『우리를 구할 가장 작은 움직임, 원헬스: 들뜰라가 말하는 인간·동물·환경의

건강은 동물·자연과 상호 작용한다라는 원헬스 개념으로 발전했다.

원헬스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널리 알려진 계기는 2004년 미국의 ‘야생동물보존협회(Wildlife Conservation Society)’가 발표한 ‘맨해튼 원칙(Manhattan Principles)’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부터다.⁶⁾ 현재 원헬스라는 용어는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그 정의와 적용 범위는 관련 기관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원헬스를 “공중보건의 향상을 위해 여러 부문이 서로 소통·협력하는 프로그램, 정책, 법률, 연구 등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접근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식품 위생,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항생제 내성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와 One Health Commission 재단은 사람과 동물 및 환경의 건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다학제적 접근법으로 원헬스를 설명하고 있으며, 지역, 국가, 세계의 다층적인 수준에서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보건의 날을 계기로 새로운 건강정책 패러다임으로 원헬스를 제시하며 “원헬스는 항생제 내성, 인수공통감염병, 화학물질 사고 등 다양한 건강 유형의 건강위협 요인이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⁷⁾

기존의 원헬스에 대한 논의가 인수공통감염병 등 수의학적 영역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살펴, 이를 넘어 인간, 동물, 환경 전체를 아우르고 단순히 보건만이 아니라 정신건강을 포함하는 복지와 웰빙 차원에서,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의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원헬스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있다. 김재호는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원 헬스 2.0을

공존 방식=One health』(서울:중앙books, 2021), 10.

6)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one health initiative, (2022), <https://www.who.int/teams/one-health-initiative>, 2023. 02. 21 최종 접속.

7) 2018년 보건의 날 계기 새로운 건강정책 패러다임, ‘원 헬스(One Health)’ 제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04. 06.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기후 변화 등 전 지구적 문제를 더 넓게 보아야 한다는 차원이다. 둘째, 정보 공유와 접근성 개방, 공중보건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원헬스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신건강을 포함시켜야 할 때이다.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는 이미 정신건강을 원헬스 개념에 포함시켰다.⁸⁾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원헬스 개념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의학, 수의학, 환경연구 등의 보건 의료 및 생물학적 부문은 물론 사회, 경제, 정치, 윤리 등의 다학제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기독교윤리분야에서의 접점은 무시되거나 본격적인 논의나 적용은 되고 있지 않다.

III. 감염병과 생태·기후위기의 관계

코로나 19는 인간과 동물, 더 나아가 자연과의 거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동물과 인간 사이를 일상적으로 왕래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모든 감염병의 60%를 차지한다. 인수공통감염병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원생생물, 프라이온, 기생충 등 여섯 가지 병원체 가운데 한 가지에 의해 감염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바이러스이다.⁹⁾ 바이러스는 다른 생물체에 비해 엄청나게 단순한데 그만큼 빨리 진화하고 엄청난 사망률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감염병은 관련 전문가들만이 다루는 난해한 주제가 아니라, 역사와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하는 주제이다. 사회발전을 이해하는데 감염병이 경제위기, 전쟁, 혁명, 인구 변화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감염병은 교류와 번영의 산물인 동시

8) 김재호, “원 헬스(One Health) 측면에서 보건 연구의 동향,” 『BRIC View 동향리포트』 216(2021), 26.

9) David Quammen, *Spillover. : Animal Infections and the Next Human Pandemic*, 강병철 역,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제주:곰꿀자유, 2020), 391.

에 사회를 해체를 야기하고 정치적 긴장감을 촉발한다.¹⁰⁾ 인류의 역사상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감염병보다 참혹한 영향을 미친 범주의 질병은 없었는데, 문제는 인류의 바람과는 달리 감염병은 종식되지 않았으며 계속 해서,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는 2014년 Ted 강연을 통해 “앞으로 몇 십 년간 만약 무엇인가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것은 아마도 전쟁이 아니라 매우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일 것이다.” 즉 “미사일(missile)이 아니라 미생물(microbial)일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¹¹⁾ 한편, 감염병 및 사회병리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예일대 역사학과 프랭크 스노든 교수는 “20세기의 가장 큰 오류는 감염병 종식이 멀지 않았다는 믿음이었다”고 말했다.¹²⁾

그렇다면 코로나 19는 왜 발생했는가? 코로나 19 팬데믹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가설은 박쥐 천산갑 같은 야생동물을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면서 동물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인 구달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팬데믹의 출현은 수년 전에 예견되었는데, 이는 자연을 무시하고 지구를 공유해야 할 동물들을 경시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즉 인간이 숲을 파괴하면 숲에 있는 여러 종의 동물이 가까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질병이 한 동물에서 다른 동물로 전염된다. 그리고 병이 옮은 동물이 다시 인간과 접촉하게 되면서 인간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¹³⁾ 또한 데이비드 콰먼¹⁴⁾은 나무들이 벌목되고 토종

10) 장문석, “코로나 19와 역사적 시각에서 본 전염병. 코로나 19 현상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1),” 『NRF Issue Report』 12(2020), 12-25.

11) Bill Gates, The next outbreak? We're not ready. [www.ted.comhttps://www.ted.com/talks/bill_gates_the_next_outbreak_we_re_not_ready?language=dz](https://www.ted.com/talks/bill_gates_the_next_outbreak_we_re_not_ready?language=dz). 2023. 02. 21 최종 접속.

12) Frank M. Snowden, *Epidemics and Society : From the Black Death to the Present*, 이미경, 홍수연 역, 『감염병과 사회 페스트에서 코로나19 까지』 (파주: 문학사상, 2020), 724-759.

동물들이 도살될 때마다, 마차 건물을 철거할 때 먼지가 날리는 것처럼, 그들의 몸에 깃들어 살던 미생물들이 주변으로 확산된다고 경고한다. 즉 밀려나고 쫓겨나 서식지를 빼앗긴 기생적 미생물 앞에는 새로운 숙주를 찾든지 아니면 멸종하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데, 새로운 숙주를 발견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 19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코로나 19는 에볼라, 니파,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의 최신 버전이며, 기후위기와 깊이 연결된 현상이다. 첫째, 생태계 파괴와 생명 다양성 감소로 인한 희석효과를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는 생태계가 건강하게 다양한 생명 사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병원균이 소수의 생물 종에게만 집중되지 않는 ‘희석효과’ 때문에 전염병이 퍼질 가능성이 적지만, 산림벌채, 광산 개발, 댐 건설, 도로개통, 신도시 건립, 축사 조성 등으로 야생동물 서식처가 파괴되면 생명 다양성이 줄어 생태계가 단순해질수록 병원체의 확산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¹⁵⁾ 둘째, 인구와 도시의 증가는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창궐과 확산의 잠재적인 위험요소이다.¹⁶⁾ 셋째, 무엇보다도 코로나 19의 발병은 기후 변화를 빼고 설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을 맞으며,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서 기후 변화 위기도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다.¹⁷⁾ 세계보건기구는 지구 온난화로 사람이 병원균에 감염될 민감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한다. ‘스톡홀름 패러다임’이라는 이론에 따르면, 기후

13) ‘제인 구달 - 코로나19 원인은 동물 학대’, 『한겨레』 2020년 4월 13일자.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36781.html,

14) David Quammen,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623.

15) 조현제, 『탄소 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과주: 21세기북스), 66-72.

16) 김재호, “원 헬스(One Health) 측면에서 보건 연구의 동향,” 5-7.

17) 최현정, “기후변화와 COVID-19 팬데믹 위기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2021), 1-7.

환경이 급격히 바뀔 때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를 찾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병원체의 기회 공간’이 열린다. 지구 온난화로 병원균들이 따뜻한 온도에 적응하면 인간 체온 37도의 장벽을 넘기가 수월해진다. 기후 변화로 인간의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식량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사람들이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커진다.¹⁸⁾ 실제로 지구 온난화는 전염병의 발생 속도를 높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후 변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 방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온도 변화에 따른 전염병 발생 영향을 예측한 결과, 국내 온도가 ‘섭씨 1도’ 상승할 경우 5가지 전염병의 평균 발생률은 4.27%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¹⁹⁾ 추운 기후에서는 질병이 적은 편이지만, 대기가 따뜻해질수록 세균과 바이러스가 빠르게 증식하고 종류도 많아지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전염병이 더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지구 온난화는 가뭄, 홍수, 이상기온 등을 통해서 감염병, 특히 곤충 매개 감염병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기온 및 강수량 변화는 매개체의 먹이 조건 등이 변화에 따라 기후조건이 다른 곳에 서식했던 외래종의 서식지 확대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지구 평균기온 증가는 고온 환경에서 생존이 유리한 종의 증식 또는 신종 미생물의 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사막화, 해안 저지대 침수, 환경오염 등 기후 변화의 1차적 영향은 그 영향을 받는 공간에 존재했던 동·식물의 서식지의 이동을 초래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환경 또는 그곳에서 사육되는 가축과의 접촉 기회를 늘릴 수 있고 이는 또 다시 감염병 발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간한 ‘2021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영향력이

18) 코로나 백신은 있지만, 기후위기 백신은 없다. 권승문. 프레시안, 2021년 1월 11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1115304254704>, 2023. 02. 21 최종 접속.

19) 신호성·김동진, “기후변화와 전염병 질병부담,”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95-97.

가장 큰 글로벌 위험요인으로 전염병과 기후위기 대응 실패를 각각 1, 2위로 선정했다. 한편 가장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요소로 극단적 기후 현상 발생을 꼽았으며, 기후 변화 대응실패, 인간이 초래한 환경파괴, 전염병, 생명 다양성 감소가 뒤를 이었다. 즉 대량 살상 무기의 위험을 제외한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측면에서 볼 때, 지구가 처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감염병을 비롯한 기후위기인 것이다.²⁰⁾ 코로나 19가 인류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재난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재난으로 인한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계층, 나이, 젠더, 인종 등에 따른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 같은 재난 불평등은 기후위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특징으로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²¹⁾

VI. 생태·기후 위기와 하나님 형상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해석

미국의 역사학자 린 화이트는 오늘날 도래한 생태의 위기의 원인을 자연에 대한 중세 기독교 신학의 오만에서 찾으려 하며 이는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유대교-기독교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²²⁾ 환경 문제에 대한 최초의 윤리학적 저술로 평가되는 패스모어의 저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서도 기독교적 서양 윤리학의 전통이 자연과 인간의

20)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21. 16th Edition,” (2021), 15-28.

21) 조효제, 『탄소 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66-72.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 화이트는 생태계의 위기에 대처할 대안을 그가 비판했던 서구 기독교 내에서 찾으려 했고 그 결과 제시한 것이 성 프란체스코가 제시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평등성 개념이었다. 성 프란체스코는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무제한적인 지배의 개념을 비판하고 이를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동등하다는 사상으로 대체했다. Lynn White,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 155(1967), 1203-1207.

관계를 등한시했음을 인정했다.²³⁾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정당하게 주장해 온 근거는 창세기 1장 26~28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과 ‘다스림(Dominion)’의 의미는 수많은 신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 다스림의 의미와 연결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스림의 의미가 달라진다.²⁴⁾

첫째, 실체적 관점(the Substantial View)에 의하면 인간이 실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어떤 요소, 예를 들면 인간의 영혼, 이성, 자유의지, 사랑, 도덕, 지식 같은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속

23) 화이트와 패스모어의 비판은 차츰 환경 윤리학이 발전함에 따라 1980년대부터 환경신학, 생태신학, 녹색신학, 그리고 동물신학이 등장하게 되었고, 인간의 자연에 대한 착취와 지배가 기독교 교리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인가를 묻게 되었다. 성영곤, “생태위기의 역사적 근원에 대한 재 고찰: 화이트의 중세기술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서양중세사연구』 19(2007), 1-37.

24) Imago Dei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실체적 관점, 기능적 관점, 관계적 관점이 있으며 이외에도 수행 관점(the Performative View), 의인화 관점(the Anthropomorphites View), 예수중심 관점(the Christocentric View), 복합(다각)적 관점(The Composite/Multifaceted View) 등이 있다. Davic Tarus, “Imago Dei in Christian Theology: The Various Approaches,” 『Online Internal Journal Of Arts and Humanities』 5(2016), 18-25.

성들은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일 뿐 아니라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 주는 표지가 된다. 중세 교부들과 고전적 신학자들은 이성을 하나님의 형상의 주된 실체로 강조했는데 대표적으로 이레네우스,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칼빈 등을 들 수 있다.²⁵⁾ 이러한 생각을 인간중심주의라고 한다. 인간과 인간 이외의 생명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인간중심주의는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자 고려의 대상인 반면 비인간 동물을 비롯한 자연은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려나 존중의 대상이 아니고, 인도적으로 볼 경우라도 단지 간접적인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같이 인간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이 자연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주장은 오늘날 대다수의 현대인에게 그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심각한 환경파괴와 기후 비상사태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능적 관점(the functional view)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기능, 특별히 피조물을 다스리는 기능을 강조한다. 기능적 관점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는데 바로 그 점에서 사람은 모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다. 여기서 인간에게 부여된 다스리는 권리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통치권은 피조물을 학대하고 착취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청지기적 봉사과 의무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도록 다스리신 것처럼, 인간도 다른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에게 위임된 사명이다.²⁶⁾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틀 목사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

25) 위의 글, 18-25.

26) 김재진, “생명의 생태학적 환경과 생명 창조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0(1)(2003), 291-315.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지배권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자연에 대한 소유권보다는 책임 있게 보살필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²⁷⁾

셋째, 관계적 관점(the relational view)은 인간은 하나님, 피조물 그리고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이 관계성이라고 본다. 칼 바르트와 에밀 부르너가 이 견해를 지지하는데, 바르트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와 인간이 인간에게 갖는 관계, 특히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성이 하나님 형상의 핵심이라고 보았으며, 브루너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성 혹은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성이 하나님 형상의 핵심이라고 본다.²⁸⁾

V. 관계적 관점의 하나님 형상 개념으로 본 원헬스와 생태 신학

“다스리고 정복하라(subdual and dominion)”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 즉 영혼과 이성을 지닌 우월한 존재로 여기고, 인간 이외의 피조물에 대해 지배가 정당하다는 세계관에 근거한다. 김군진은 이를 인간이 다른 피조물, 즉 자연과의 관계를 주체와 객체로 보는 시각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즉 자연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인간이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주체”인 반면,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사용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며 특별하고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인간에게만 부여받은 하나님

27) J. R. W. Stott, *Issues Facing Christian Today*, 정옥배 역,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2011), 135-160.

28) Tarus, “Imago Dei in Christian Theology: The Various Approaches,” 18-25.

의 형상은 땅의 피조물을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연결된다. 그 결과 인간이 정복하고 착취해온 한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라는 모습으로 다가왔다.²⁹⁾

한편 생태계 파괴를 비롯한 기후위기를 맞이하면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착취하는 권리가 아닌 청지기적 사명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현대 신학자들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것을 비판하며 인간은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우월한 능력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적 특성으로 구별된다고 본다.³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받는 원헬스 개념에 입각하여 생태·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신학을 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김은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을 다룬 인간중심적 전통에서 벗어나 비인간 동물과 자연을 포괄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로 막시무스의 로고이 신학(Logoi Theology)를 소개했다. 막시무스의 로고이 신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기초하여 각각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구속적 관심에 포함되어 있고 인간은 그러한 구속을 성취하도록 돕는 독특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³¹⁾ 이 소명은 인간중심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수많은 다양한 종(species)들을 섬기는 종(servant)으로서의 거룩한 책임을 의미한다.³²⁾ 더

29) 김균진, “자연에 속한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 『한국조직신학논총』 19(2007), 11-50.

30) Daniel K. Miller, “Responsible Relationship: Imago Dei and the Moral Distinction between Humans and Other Animals,”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13(3)(2011), 323-339.

31) Kris Hiuser, “Maximizing Animal Theology: Maximus the Confessor on the Value of Non-Human Animals and the Human Calling,” 『Toronto Journal of Theology』 30(2)(2014), 247-256.

32) 김은혜,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동물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책

글라스 홀은 자연신학과 청지기 정신의 존재론적인 근거를 ‘사랑의 행위’로서의 하나님 형상에서 찾는다. 그가 제시한 ‘관계적 하나님의 형상’ 개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더 많은 힘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이미지에 근거하여 그 힘을 자연을 위해 건설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³³⁾ 홀은 그의 저서 ‘이미징 하나님: 청지기로서의 다스림(Imaging God: Dominion as Stewardship)’에서 오늘날 지구의 생태위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개념에 기초해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관점, 모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개념은 근본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홀에 의하면, 다른 어떤 성경적 표현보다 인간의 본질을 가리키는 기독교의 상징적 방법이 된 ‘하나님 형상’이라는 개념의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은 타고난 것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have)”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관련된 특성이다, 따라서 그는 ‘imago’를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창조된 질서 안에서 인간의 소명은 창조주를 “이미지화”하는 것이고 이것이 일관되고 진지한 방식으로 적용될 때, 자연 질서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진정한 모델로 예수의 주권을 취하는 것은 다스림이 지배가 아니라 봉사, 즉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다른 이들에 대한 희생적인 봉사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지기로서의 통치 개념은 자연과 관련된 소유권이나 우월성이 아닌 자연의 복지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의미한다.³⁴⁾

관계적 관점을 논함에 있어 교황 프란치스코의 발언을 소개하고자 한

임, 「장신논단」 53(5), (2021), 149-177.

33) 장도권, “더글라스 홀의 생태신학 -청지기 정신,”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엮음, 『현대생태신학자의 신학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55-76.

34) D. J. Hall, 『Imaging God: Dominion as Stewardship』 (Eugene: Wipf and Stock Publication, 2004), 14-60.

다. 그는 2015년 환경에 관한 회칙 “찬미 받으소서(Laudato Si)”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땅에 대한 지배권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거부해야 하며 모든 피조물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을 사랑과 존경으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했다.³⁵⁾

또한, 생태·기후 위기에 대한 생태신학적 근거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몰트만은 자연세계를 하나님의 창조로 이해한다. 따라서 자연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다. 몰트만은 올바른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배적 이원론을 극복하고 창조 공동체 안에 있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인 페리코레스시스(Perichoresis)적인 사귀를 제안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통점을 나타내는 세계의 형상과 인간의 독특성인 상징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상호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인권은 자연의 권리 안으로 통합되어야 한다.³⁶⁾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은 자연에 대한 범신론적 사고를 배제하면서 동시에 자연에 가치를 부여한다.³⁷⁾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라는 구절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본유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가치, ‘ 좋음’이라는 가

35) Pope Francis Rejects the Notion of Domination over Other Creatures, Animal Interfaith Alliance, 2015. 07. 15. <https://animal-interfaith-alliance.com/2015/07/10/pope-francis-rejects-the-notion-of-domination-over-other-creatures/> 2023. 02. 21 최종 접속.

36) Perichoresis는 삼위일체교리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중요한 핵심용어이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성부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하나님께서 인격체로서 내주하신다는 의미이다. 이성분, “몰트만의 자연의 신학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37) 김경철,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자연에 대한 생태신학적 고찰,” 「조직신학연구」 33 (2019), 10.

치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부여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간 이외의 피조물의 가치는 인간의 유익이나 이용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는 독립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더 이상 인간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에 둔 생태윤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모든 피조물의 원천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면 이들의 긴밀한 상호 연관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제 생명에 대한 부분적 이해에서 벗어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상호의존의 관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통전적 생태윤리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³⁸⁾

‘생명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성’을 잘 표현하는 개념이 바로 원헬스이다. 다수의 신학자들이 이미 세속 영역에서 널리 강조되는 원헬스적 생태신학을 논해왔는데, 대표적인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힐데가르트는 인간을 포함한 창조된 만물은 구별된 개체적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체의 존재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은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본질들은 다른 존재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유지된다.³⁹⁾ 김경철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 특별하고 우월하다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 혹은 ‘삼위일체적 생태신학’으로, 인간과 자연의 위계적 관계를 ‘수평적’ ‘공생적’, ‘사랑의 관계’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태계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모든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다.⁴⁰⁾⁴¹⁾ 블룸하르트는 창조질서가

38) 오성현, “기독교적 영성과 생명윤리,” 『생명연구』 20(2011), 33.

39) 이충범, “생태학자 빙엔의 힐데가르트,” 한국교회환경연구소, 한국교회사회학회 편저.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본 창조신앙 생태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22.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그 존재의 출발부터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산다는 뜻이다. 태생적으로 공동체성을 가진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즉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피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⁴²⁾ 반 다이크는 “성경의 모든 구절은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관심과, 감독, 그리고 관계를 보여준다”고 하며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의 창조 세계인 것이며, 우리 주위의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려면 인간의 사고를 바꿔야 하는데,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림은 봉사로서, 또 다스리고 지키라는 명령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관리와 보전이 청지기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⁴³⁾

김은혜는 모든 신학에는 그 맥락이 있다고 보며, 그 맥락적 윤리(contextual ethics)는 자연과 이성, 자연과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파악하기보다는 구체적 역사 속에서 동물, 식물, 바람, 돌 등과 같은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재에게 윤리적으로 다가갈 것을 강조한다. 이처럼 인간이 관계론적인 전체성을 가지고 비인간 존재에게 윤리적으로 다가갈 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지닌 이성, 권리, 감각과 같은 요소보다는 인간과 자연적 존재가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맥락이다.⁴⁴⁾ 여기서 이성이

40) 김경철,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자연에 대한 생태신학적 고찰,” 『조직신학연구』 33 (2019), 10.

41) 김광연, “생태계 위기에 따른 선교신학적 과제와 전망 - 창조세계와의 사명과 섬기는 지배자로서의 인간상 회복,” 『복음과선교』 41(1)(2018), 13.

42) 임희국,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의 생태신학- 우주적 기독교론을 중심으로,” 한국교회환경연구소, 한국교회사학회 편저.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본 창조신앙 생태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373.

43) F. van Dyke, D. C. Mahan, J. K. Sheldon, & R. H. Brand, 유정철 역, 『환경문제와 성경적 리』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9), 153.

나 권리와 같은 담론에 더하여 다스리고 변성하라는 남성·성장중심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과 자연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하며 여성중심주의적 돌봄 윤리⁴⁵⁾나 에코 생태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⁴⁶⁾ 기독교 생태윤리가 이성 중심의 남성가부장적 시각에서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가부장적 관점은 힘의 논리에 의하여 타자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린 존재가 되어 타자를 비롯한 주변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비이원론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는 탈 가부장적 관점은 피조물인 자연 안에서 아무것도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한다.⁴⁷⁾ 에코페미니즘은 가부장제 안에서 발생하는 자연 착취와 여성 억압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생태신학자 로즈마리 류터는 생태계의 위기 문제를 제국주의, 종차별주의, 계급차별주의와 같은 인간에 대한, 특히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억압들과의 상호연관 속에서 파악하고 이를 생태-정의(eco-justice)의 관점에서 다룬다.⁴⁸⁾ 해러웨이는 남성-여성, 인간-동물, 유기체-기계 같은 이분법적 질서를 해체하고 지구의 모든 인

44) 김은혜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평등한 가치를 갖는다고는 보지 않는다. 인간과 자연적 존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에 따른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즉, 자연의 내재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인간이 지닌 차별화된 특수성과 자연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고려하면서 자연과 공존하고 공진화 할 수 있는 가치를 생산하는 문화적 책임을 강조한다. 김은혜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대한 신학적 성찰: 새로운 인간주의를 향하여,” 『장신논단』 36(2009), 180.

45) 남미순, “나딩스의 여성중심적 돌봄 윤리를 넘어서,” 『범한철학』 81(2)(2016), 325.

46) 박혜영, “생태위기와 에코페미니즘의 ‘젠더’론 — 젠더의 저항성 회복을 위한 모색,” 『인문논총』 76(4)(2019), 325.

47) 이정배, “제이 맥다니엘의 생태신학 연구: 탈가부장적 기독교와 생태학적 영성,”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엮음, 『현대생태신학자의 신학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1-20.

48) 김예영, “로즈마리 류터의 생태여성신학,”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엮음, 『현대생태신학자의 신학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27-154.

간과 비인간 거주자들과 맺는 관계를 바꾸자고 제안한다. 이 관계의 변화를 위해 인간은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반려종과 공-산(共-産), 공-생(共-生)하는 삶의 양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려종”이라는 개념을 창안한 헤러웨이는 인간이 비인간 존재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두 존재의 ‘차이’에 대한 인정, 즉 ‘소중한 타자성’이 중요한데, 지구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중심적 세계화를 지양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려종’의 관점에서 인류가 비인간 타자들과의 책임 있는 관계 맺기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한다.⁴⁹⁾

VI. 나가는 말

코로나 19는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생태·기후 위기가 다름 아닌 인간이 속한 생태계의 거대한 그물망을 스스로 파괴했기 때문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지구 생태 공동체가 처한 위기는 더 이상 인간중심적 세계관 속에서 특정 국가나 이념의 주도하거나 과학과 기술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류 모두가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이다.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인간 자신이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자연과 인간의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⁵⁰⁾⁵¹⁾

생태계 위기가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환경문제와 이런 환경재앙을 가속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 지배체제와 서로 얽혀있다면 인류는 자연파괴와 인간억압의 상호연결을 분석하는 비판 담론과 이에 기초하여

49) 최유미, 『헤러웨이, 공-산의 사유』 (서울: 도서출판b, 2020), 20.

50) 박용범, “21세기 기독교윤리를 위한 사회생태적 창조정의 구상,” 『영산신학저널』 48(2019), 303-329.

51) 김균진, “자연에 속한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 11-50.

상생과 공존을 지구 공동체의 희망적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윤리관이 필요하다. 생태·기후 위기가 기독교가 정신적 기초를 형성하고 있었던 서구세계에서 시작된 만큼 그 치유책도 기독교적 뿌리에서 찾아야 한다.⁵²⁾ 오늘날 생태위기의 이면에는 이원론적 위계 구조를 지닌 인간학적·신학적 전제가 숨어 있다. 총체적인 세계관이 변해야 한다. 전통적 창조론이 인간 이외의 피조물을 배제한 것에 비해 성육신에 토대를 둔 창조 이해는 하나님은 우주 안에 존재하시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식이다.⁵³⁾ 따라서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도 신성한 가치를 지닌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계 안에서 다른 생명체들과 공존하면서 살도록 지음 받았다. 인간이 부여받은 자연에 대한 통치권은 통치권을 위임한 창조주의 본성, 즉 생명을 긍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본성의 실현을 위한 것이지 인간중심주의적인 착취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에게 생태적 윤리의식을 요구한다.⁵⁴⁾

기독교 윤리적인 차원에서 코로나 19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코로나19에 의해 새롭게 드러난 반성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생태계 신학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인간중심주의가 가져 올 수 있는 심각한 위해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새로운 윤리 패러다임을 열어야 한다. 새로운 생태신학의 패러다임은 모든 피조물의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조화를 누릴 것을 기대하는 생태적 비전이다. 생태적 창조 의식의 자각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지구

52) 전현식, “에코페미니즘, 세계화, 그리고 생명의 비전,”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엮음, 『현대 생태신학자의 신학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317-340.

53) 장윤재, “기후붕괴, 문명의 전환 그리고 신학의 재구성,” 『코로나19와 한국교회의 회심. -신학·목회·선교의 과제』 (서울: 동연, 2020), 62-67.

54) 오성현, “기독교적 영성과 생명윤리,” 33.

생태계 전체를 상호관계하며 상호책임을 지는 일종의 생태 공동체와 같은 구조로 바라보는 기독교 생태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조망이 강조되어야 한다.⁵⁵⁾ 구약성서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자연과 인간이 서로에게 의존하는 생명 공동체임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준다.⁵⁶⁾ 인간과 동물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결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원헬스 개념이 강조하는 것과 일치한다. 생태 파괴와 환경문제, 그리고 감염병 창궐의 책임을 과학적, 기술적, 행정 체계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 인식하고 원헬스적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윤리적 관점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데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심각한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기독교 윤리관 속에 숨어있는 폭력적인 인간중심주의를 되돌아보고 올바른 인간과 동물,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새로운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창궐을 예방하고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55) 박용범, “코로나19 이후 창조 의식의 전환: 에고(Ego)에서 에코(Eco)로,” 『신학과 사회』 34(3)(2020), 129.

56) 강성열, “코로나 위기 시대와 구약신학의 과제,” 216-256.

참고문헌

- 김애영. “로즈마리 류터의 생태여성신학.”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엮음. 『현대생태신학자의 신학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든뜰라. 『우리를 구할 가장 작은 움직임, 원헬스: 든뜰라가 말하는 인간·동물·환경의 공존 방식=One health』. 서울: 중앙books, 2021.
- 장도권. “더글라스 할의 생태신학 -청지기 정신.”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엮음. 『현대생태신학자의 신학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이정배. “제이 맥다니엘의 생태신학 연구-탈가부장적 기독교와 생태학적 영성.”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엮음. 『현대생태신학자의 신학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이충범. “생태학자 빙엔의 힐데가르트.” 한국교회환경연구소, 한국교회사학회 편저.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본 창조신앙 생태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임희국.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의 생태신학-우주적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국교회환경연구소, 한국교회사학회 편저.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본 창조신앙 생태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373.
- 장윤재. “기후붕괴, 문명의 전환 그리고 신학의 재구성.” 황홍렬 편. 『코로나19와 한국교회의 회심-신학·목회·선교의 과제』. 서울: 동연, 2020, 62-67.
- 전현식. “에코페미니즘, 세계화, 그리고 생명의 비전.”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엮음. 『현대생태신학자의 신학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317-340.
- 조효제. 『탄소 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파주: 21세기북스, 2020.
- 최유미.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서울: 도서출판b, 2020.
- Quammen, David. *Spillover: Animal Infections and the Next Human Pandemic*. 강병철 역.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제주:꿈꿀자유, 2020).
- Atlas, Ronald M. & Maloy, Stanley. *One Health: People, Animals, and the Environment*. 김영아 외 역. 『원헬스. 사람·동물·환경』. 서울: 범문예듀케이션, 2020.
- Snowden, Frank M., *Epidemics and Society: From the Black Death to the Present*. 이미경, 홍수연 역. 『감염병과 사회 페스트에서 코로나19 까지』. 파

주: 문학사상, 2020.

- Stott, J. R. W., *Issues Facing Christian Today*. 정옥배 역.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2011.
- Van Dyke, F., Mahan, D. C., Sheldon, J. K., & Brand, R. H., 유정칠 역. 『환경 문제와 성경적 원리』,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9.
- Hall, D. J., *Imaging God: Dominion as Stewardship*, Eugene: Wipf and Stock Publication, 2004. 14-60.
- 강성열. “기후붕괴, 문명의 전환 그리고 신학의 재구성.” 황홍렬 편. 『코로나 19와 한국교회의 회심. -신학·목회·선교의 과제』 서울: 동연, 2020.
- 공혜정. “새로운 변화-기후변화와 원헬스(One Health) 패러다임 고찰,” 『생태환경과 역사』 5(2019), 69-104.
- 김경철.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자연에 대한 생태신학적 고찰.” 『조직신학연구』 33(2019), 10-41.
- 김광연. “생태계 위기에 따른 선교신학적 과제와 전망 - 창조세계와의 사귀고 섬기는 지배자로서의 인간상 회복.” 『복음과선교』 41(1)(2018), 13-43.
- 김균진. “자연에 속한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 『한국조직신학논총』 19(2007), 11-50.
- 김은혜.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대한 신학적 성찰: 새로운 인간주의를 향하여.” 『장신논단』 36(2009), 180-205.
- _____.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동물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책임.” 『장신논단』 53(5)(2021), 149-177.
- 김재진. “생명의 생태학적 환경과 생명 창조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0(1)(2003), 291-315.
- 김재호. “원 헬스(One Health) 측면에서 보건 연구의 동향.” 『BRIC View 동향리포트』 216(2021), 1-45.
- 남미순. “나딩스의 여성중심적 돌봄 윤리를 넘어서.” 『범한철학』 81(2)(2016), 325-350.
- 박용범. “21세기 기독교윤리를 위한 사회생태적 창조정의 구상.” 『영산신학저널』 48(2019), 303-329.
- _____. “코로나19 이후 창조 의식의 전환: 에고(Ego)에서 에코(Eco)로.” 『신학과 사회』 34(3)(2020), 129-159.

- 박혜영. “생태위기와 에코페미니즘의 ‘젠더’론 —젠더의 저항성 회복을 위한 모색.” 『인문논총』 76(4)(2019), 325-356.
- 장문석. “코로나 19와 역사적 시각에서 본 전염병. 코로나 19 현상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1).” 『NRF Issue Report』 12(2020), 10-31.
- 성영곤. “생태위기의 역사적 근원에 대한 재 고찰: 화이트의 중세기술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서양중세사연구』 19(2007), 1-37.
- 신호성·김동진. “기후변화와 전염병 질병부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95-97.
- 오성현. “기독교적 영성과 생명윤리.” 『생명연구』 20(2011), 33-64.
- 이성분. “몰트만의 자연의 신학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최현정. “기후변화와 COVID-19 팬데믹 위기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2021), 1-17.
- Miller, Daniel K., “Responsible Relationship: Imago Dei and the Moral Distinction between Humans and Other Animals.”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13(3)(2011), 323-339.
- Hiuser, Kris. “Maximizing Animal Theology: Maximus the Confessor on the Value of Non-Human Animals and the Human Calling.” *Toronto Journal of Theology* 30(2)(2014), 247-256.
- Tarus, Davic. “Imago Dei in Christian Theology: The Various Approaches.” *Online Internal Journal Of Arts and Humanities* 5(2016), 18-25.
- White, Lynn.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 155(1967), 1203-1207.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21. 16th Edition.” (2021). 2018년 보건의 날 계기 새로운 건강정책 패러다임. ‘원 헬스(One Health)’ 제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04. 06.
- ‘제인 구달 - 코로나19 원인은 동물 학대.’ 『한겨레』 2020년 4월 13일자.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36781.html,
- 코로나 백신은 있지만, 기후위기 백신은 없다. 권승문. 프레시안. 2021년 1월 11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1115304254704>
-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AVMA). (2022). <https://www.avm->

a.org/resources-tools/one-health,

Pope Francis Rejects the Notion of Domination over Other Creatures. Animal Interfaith Alliance, 2015. 07. 15.

Gates, Bill, The next outbreak? We're not ready. www.ted.com https://www.ted.com/talks/bill_gates_the_next_outbreak_we_re_not_ready?language=dz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one health initiative. (2022). <https://www.who.int/teams/one-health-initiative>

논문투고일: 2023년 03월 12일

심사개시일: 2023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3월 29일

• 국 문 초 록 •

지난 수년간 인류는 코로나 19로 인해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이런 전염병이 언제든지 창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해 현실의 문제로 닥친 지구촌 곳곳의 기상 이변은 인간-동물-환경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19 뿐만 아니라 기후 비상사태라는 전례가 없는 문제에 직면하여 새롭게 드러난 반성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생태계 신학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인간중심주의가 가져 올 수 있는 심각한 위해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기독교 신앙 전통 속에 흐르는 “다스리라”라는 창세기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책임을 신학적·기독교 윤리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새로운 기독교 윤리 패러다임을 열어야 한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생태윤리를 창세기에 나타난 Imago-Dei(하나님 형상)과 One Health(원헬스)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제어: 포스트 코로나, 기후위기, 생태신학, 기독교 생태윤리, 하나님 형상, 원헬스
